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10월 16일(주일) 제1119호



그리스도를 본받은 교사,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23일까지 '2017 차세대 교사 모집' 차세대 637명, 사랑부 95명 필요

(예광·꿈땅·PW)

(장애인예배공동체)

차세대 교사를 모집한다. 오늘(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주 동안 서빙고, 양재, 도곡교육관에서 '2017 차세대 교사 모집' 행사가 실시된다. 나머지 캠퍼스는 11월 중순에 차세대 교사 모집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세대사역본부는 “현재 차세대

교사 637명(서빙고 183명, 양재 154명, 부천 53명, 수원 82명, 대전 36명, 남양주 38명, 평택 7명, 인천 33명, 강동 17명, 양지 14명, 도곡 20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다음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성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장애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배공동체 사랑부 교사도 함께 모집한다. 장애인사역본부는 “현재 사랑부 교사 95명(서빙고 50명, 양재 10명, 부천 10명, 강동 20명, 온사랑합창단 5명)이 필요하다”면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밝혔다. 온사랑합창단에서는 음악적 재능(성악, 피아노)이 있거나 음악을 좋아하는 교사를 애대게 기다리고 있다.

차세대 교사가 되려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자 세례 받은 성도여야 한다. 다음세대에게 건강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신앙전수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더욱 좋다.

차세대 교사로 지원하고자하는 성도는 오늘(16일)과 다음 주일(23일) 서빙고, 양재, 도곡교육관 로비에 설치되는 차세대 홍보부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차세대 교사 지원하면 '신입교사대학'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신입교사대학은 차세대 교사로서의 사명과 비전을 다지고, 온누

리교회 차세대를 이해하는 장이다. 신입교사대학을 수료해야만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가 될 수 있다. 신입교사대학에서는 온누리교회 차세대 소개 및 영역소개, 교사로서의 사명, 'Jump to Jesus' 과정 등을 통해 교사를 양육하고 있다.

문의: 서빙고 02-3215-3525

양재 02-570-7548

사랑부 02-3215-3268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일본CGNTV 개국 10주년 감사예배

“젊은 목회자와 다음세대 양성에도 힘쓸 것”

일본CGNTV가 개국 1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3일, 일본 요도바시교회에서 이재훈 담임목사, CGNTV 대표이사 유재건 장로, 일본 교계 목회자와 성도, CGNTV 임직원, 시청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CGNTV 개국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자리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일본CGNTV는 일본 영혼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 많은 일본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축하했다.

유재건 장로는 “일본CGNTV가 영의 양식 공급뿐만 아니라 젊은 목회

자들과 다음세대를 하나님의 리더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마츠오 나미코 성도는 “일본CGNTV는 인생의 큰 변화가 있었을 때 한 발짝 내디딜 용기를 준 친구”라고 했고, 아라카와 마사오 목사는 “CGNTV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과 복음을 공

유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고백했다.

시타미치 사다미 목사는 “CGNTV의 거룩한 사역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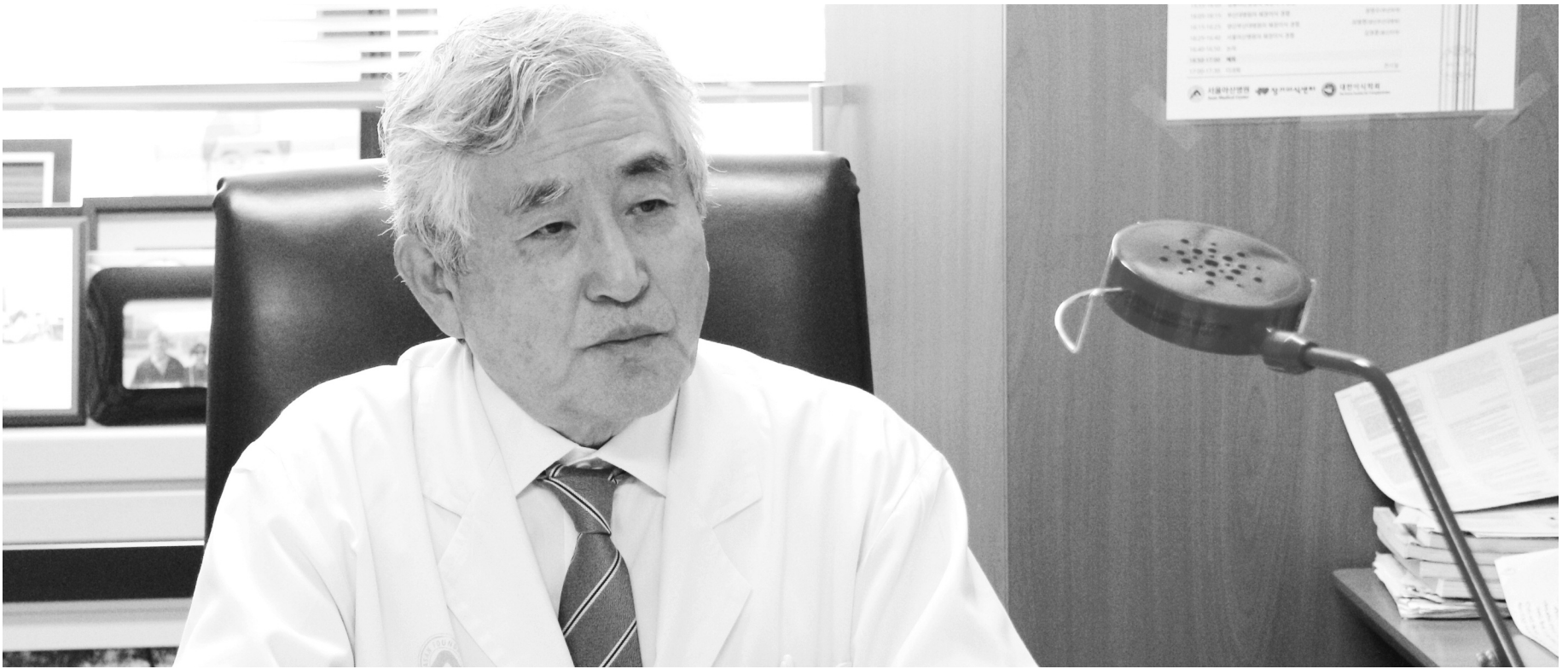
일본CGNTV는 지난 2006년 10월 개국했다. 동경과 오사카에 지사를 두고 일본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직원 16명이 연간 405편, 103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일본 47개현 교회와 네트워크를 구축,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 집회를 온누리교회 및 일본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 정현주 기자

저출산대책포럼 새 이름 공모

취지: 인구 감소 극복 운동 실천
내용: 함차고, 공감할 수 있는 이름
한글, 영어 모두 가능
(상표등록 가능해야 함)
날짜: 10월 23일~11월 13일
시상: 대상 1명, 우수상 3명
보낼곳: greenbi55@naver.com
문의: 송종환 장로
010-3333-3010

목상하는 목수들을 찾아서 1

국내 이식수술분야 최고권위자 한덕종 장로



“선한 마음 품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목상하는 목수들을 만나고 싶었다. 일터에서 성공적으로 일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진짜 목상하는 목수들 말이다. 과연 그들은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고,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그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났다. 국내 췌장, 신장이식수술 분야 권위자이자 온누리교회 장로인 한덕종 장로(서울아산병원 외과교수)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췌장이식수술을 했고, 신장이식수술을 가장 많이 한 인물이다. 신앙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른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제가 일과 신앙생활을 모두 잘한다고요?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겸손이 몸에 배어 있었다. 어떻게 하면 장로님처럼 일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사코 손사래를 쳤다.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깐요. 지금껏 4600명에게 신장이식수술을, 350명에게는 췌장이식수술을 해줬습니다. 대부분 성공했지만 구하지 못한 생명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은 어떨까. 한 장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 장로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교회리더십 역할을 해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위의 거듭되는 권유와 기도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역할이 주어지면 교회를 더욱 충실하게 섬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바꿨다.

“아직도 온누리교회의 장로라는 직분은 저에게 과분합니다. 도전을 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식수술분야 최고 권위자가 되기까지

한덕종 장로는 1949년 출생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마쳤다. 미국으로 연수를 갔는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의사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바쁘고, 고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바쁜 삶을 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

“의사들의 삶은 말도 못하게 바쁩니다. 특히 이식분야 의사들은 더 바쁘고, 더 괴롭습니다. 수술일정에 쫓겨 교회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선을 다해 교회에 갔습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의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이 엄청나다. 남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신앙생활의 일부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의사는 타인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한순간 실수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책임이 막중한 일을 완수해 낼 수 있는 비결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신앙생활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신앙생활이 결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직업을 통해 신앙이 더 단단해졌다.

“의사에게 환자가 치유되는 것보다 기쁘고 보람된 일이 없습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몹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신앙이 저의 가장 든든한 위로이자, 격려입니다.”

그는 우리나라 췌장과 신장이식수술 분야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1992년 우리나라 최초로 췌장이식수술을 집도했다. 이 분야를 개척한 인물이다. 매년 40여 명의 환자를 수술하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많은 수술횟수다. 그는 1987년 미국에서 췌장이식수술을 배워왔다. 그런데 환자가 없었다. 1992년 첫 번째 환자를 만났다. 당뇨병을 앓던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당뇨병 합병증으로 시각을 잃어 빛만 구분하는 정도였다. 인슐린의 양도 어마어마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췌장이식수술 첫 번째 환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수술해 주세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다. 건강하게 회복되었다. 그 환자가 한 장로에게 특별한 이유는 첫 번째 췌장이식수술 환자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환자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췌장이식 수술이 가능하다고 믿고 환자들이 오기 시작했다.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성경'

그는 큰 나무 같았다.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무처럼 든든해 보였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성장하고, 치유되는 느낌이었다.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비결이 무엇일까. 집요하게 묻고 또 물었다. 한사코 과찬이라며 대답을 피하던 그가 시선을 돌렸다.

시선이 멈춘 곳은 책상이었다. 한권의 성경책이 놓여 있었다. 느지막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가 이처럼 올곧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경이라고 했다. 그는 성경 읽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항상 손에서 성경을 놓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대로 실천했다.

“저는 말씀을 먹고 마시는데 욕심이 많습니

다. 항상 부족함이 느껴져서 성경을 더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 년에 한 두 번은 꼭 성경을 통독합니다.”

2010년이었던. 미국으로 몇 개월 동안 안식월을 갔었는데 그때부터 성경읽기 매력에 푹 빠졌다. 그렇게 성경통독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그 다음해 장로로 피택되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킨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삶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몸에 밴 말씀을 실천하게 하셨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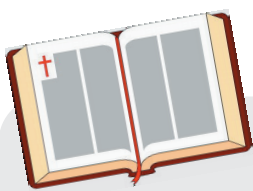
이처럼 열심히 일하고, 신앙생활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에게도 진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의사들은 환자들의 병이 깊어지면 몸과 마음이 함께 피폐해집니다. 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병원을 전도의 황금어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좋은 전도의 장에서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한 장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일터에서 땀 흘리면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 시대 요셉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먼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기 일을 제대로 안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은 그릇된 태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품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남들이 먼저 인정해 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터에서 선교사로 사는 비결입니다.”

한덕종 장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료지도자협의회(Medical Leaders Corporation)에서 활동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중국 등지에서 의료교육사업을 하고 있다. 언제나 청춘인 그의 꿈과 소망을 응원한다. 그리고 그의 삶을 닦고 싶고, 배우고 싶다. 그렇게 이 시대의 요셉이 되고 싶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에 겸손한 삶을 사시는 것으로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낮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향하게 한 해롯, 빌라도, 대제사장, 유대 지도자들이 낮아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굴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온전히 자발적인 선택과 자원함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분이 만물의 일부가 되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의 일부가 되신 것이고, 시간 속에 제약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공간을 만드신 분이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단순히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주거나 돕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가 스스로 약한 자가 되는 것은 자원이 다릅니다. 부요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지만 부요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 계시면서 인간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C.S.루이스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돼지가 된 것보다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되 모든 인간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이 받는 최고의 멸시, 경멸, 수치를 받는 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자극히 낮추셨기에 자극히 높아짐

복음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십자가에서 낮아지심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역사의 비극일 뿐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소식일 뿐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9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높이시되 자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철저히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바로 그분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그리스도 스스로 보좌에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조금도 높아지려는 마음과 욕망, 교만이 없었습니다. 친히 면류관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씌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높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이용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분께 돌도 던졌습니다. 돌을 던지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인간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조롱받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자극히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자극히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극히 높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본래 자극히 높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높이심으로 영광스럽게 되신 분이 아닙니다. 본래 자극히 높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계시던 분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비우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린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회복의 높아지심입니다.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 번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마 18:4).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해할 수 있었을텐데 “어린이와 같이 자신을 낮춘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울지 않습니까. “어린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들도 연령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는 태어나서 권력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조정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때를 뜻합니다. 어린이아이일수록 세상의 뉴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권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뉴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을 깨달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뉴스들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들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야 어린이입니다. 이처럼 권력에 낮은 상태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셨기에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는 스스로를 높일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린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기억하면 복음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것은 스스로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대표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두 가지 면에서 성도들에게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대표로 높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엡 2:4-6).

이 말씀 마지막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우리도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는 하늘에 앉은 존재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릴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연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 사건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스포츠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승리하면 모두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대표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승천과 재림은 우리를 하늘에 앉혀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의 많은 절기의 순서가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성탄절을 가장 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기쁜 일이지만, 우리가 더욱 기쁨을 외쳐야 하는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을 맞이할 때의 기쁨과 감격이 성탄절보다 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일을 기념하는 절기는 없지만 부활절과 승천을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절예배를 드린 성도들의 모습에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수막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써 놔지만 얼굴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를 대표해서 일어난 것이라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기쁨의 원천인 성도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평가나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들의 대언자로!

둘째, 그리스도가 높아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들의 대언자로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시라”(요일 2:1).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범합니다.

(13면에 계속)

“이렇게 해주면 아이

기획_ 이대로 가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다. 우리나라의 존립을 걱정할 수준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일까.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되다보니 결혼이 늦어지는데다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열악한 양육환경까지 더해져 아이 낳을 엄두를 못 내는 것이다. 뽀족한 대안이 없다고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한국의 출산율이 이대로 가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누리교회 ‘저출산대책포럼’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발족했다.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 그 고민의 일환으로 저출산대책포럼 소속 장로들이 젊은 부부들을 만났다. 김선래 장로, 송중환 장로, 고건 장로와 정찬웅·전유현 부부(가정사역공동체)와 김성환·이현아 부부(서초D공동체)가 왜 자녀를 낳지 않고, 어떻게 해주면 낳을 것인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김선래 장로
(가정사역공동체)

저출산이 왜 문제이고, 얼마나 심각한 수준입니까?

김선래 장로(이하 김):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콜먼이라는 인구학자가 2006년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인구문제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300년 5만 명(남자 2만명, 여자 3만 명), 2600년에는 모두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는 이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저출산 문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부랴부랴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된 정책에 사용된 예산이 무려 100조원입니다. 2006년 우리나라 출생률이 1.25명이었는데 100조원을 쏟아 부은 2016년 현재 출생률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1.24명입니다.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위기 수준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출생률이 낮아져서 계속 인구가 줄면 학교나 기관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경제활동도 그만큼 위축됩니다. 결국 나라의 존립에 대한 문제로 귀결됩니다.”

고건 장로(이하 고): “30년(1세대)이 지나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또 30년이 지나면 그것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세대를 지날수록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매년 110~120만 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2000년대 60만 명에서 지금은 4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수치대로라면 2030년에는 신생아가 3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김: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950~70년대 실시된 산아제한정책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뒹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 산아제한 캠페인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그때 인식이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각인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산아제한정책이 경쟁의식을 불러와서 저출산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다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적게 낳아 잘 기르자는 생각이 경쟁의식을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 한명을 낳아 대학까지 졸업시

키는 데 무려 2억 6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게 대학을 나왔는데도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고: “맞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85%가 넘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은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대학에 들어하려고 할까요. 조사에 의하면 우리 사회가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를 차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력에 따라 사람을 차별을 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더 낳아라”고 호소해서 해결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의식에서부터 사회적인 인식과 구조의 변화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저출산이 불러올 심각한 문제가 언제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십니까.

고: “2030년까지 이제 1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 노동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030년 노동인구(20~60세)는 지금 5~45세입니다. 지금 5~45세 인구는 이미 30년 전보다 반이나 적습니다. 이렇게 노동인구가 줄어들면 그에 맞춰서 철도, 지하철, 병원 등 사회의 시설들이 줄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들의 수가 지금보다 더 많아진 2030년에는 병원이나 간호사,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감당할 인구가 없습니다. 혹은 외국인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대체인력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생산가능인구와 부양인구 사이의 빈틈을 메꿔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미래에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 우리 사회의 모든 제반시설이 완전히 구제불능이 되어버립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실제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건잡을 수 없어질 것입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왜 아이를 안 낳

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찬웅(이하 정):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젊은 부부들이 당장 먹고 살기 힘든 현실에서 저출산 문제를 내 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유현(이하 전): “아이 키우는 일이 정말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고부터 제 일을 그만뒀습니다. 친정이나 시댁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 말고는 아이들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늦는 날이 많아서 온전히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전업주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양육을 전담하다보면 내 삶과 꿈이 없어지고, 아이 위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현아(이하 이):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행히 친정 부모님이 육아를 도와주셔서 직장 다니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녁에 일 끝내고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 씻기고, 재우고, 밀린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서 힘들어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부부 혹은 결혼전령기 청년들은 부모세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많이 받아 자아존중감이 굉장히 높은 세대입니다. 저는 29살에 결혼했는데 지금 결혼나이로 보면 어린 나이에 한 것이더라구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24살에 취직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꿈을 펼쳐볼 나이(29세)가 딱 지금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창 일을 할 나이에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해버리면 지금까지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도 그 아이도 자라서 저처럼 살게 되는 게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특히 여자들이 꿈을 펼치지 못하고 꺾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정: “아내가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우리 가정의 경제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파하려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든지, 제가 투잡을 뛰든지 해야겠더라고요. 외벌이로 생



고건 장로
(여의도공동체)



송중환 장로
(가정사역공동체)

더 낳겠습니다!”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 전문적 기관 운영 및 전문 인력 공급, 저렴한 비용까지
결국, 교회만이 희망 ... 결혼부터 임신, 출산, 양육까지 책임지는 모델 되어야!

활을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대부분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성환(이하 환):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면 가정에서 좋은 가정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남편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과 가정생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주면 아이들을 더 낳겠습니까?

환: “아이들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부모들에게 그런 신뢰감을 줘야 합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된 정책에 100조를 썼다고 하는데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직장동료의 아이가 저녁 9시까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국가기관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늦은 시간까지 맡아주니 부모입장에서는 안심이 되겠더라고요. 비용도 저렴하고요. 이런 기관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 맞벌이 부모들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것 같습니다. 사설보육시설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인데다가 비용까지 저렴한 교육시설이 확충된다면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전: “결혼하는 나이가 늦어지는 것도 저출산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신혼부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가지는 경우가 있고, 자녀를 하나 이상 낳기도 어려워하더라고요. 만혼(晩婚)문제 해결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해주는 혜택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양육비를 지급받거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면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 말입니다. 그런데 연년생일 경우에는 양육비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유치원 비용이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 되는데 연년생일 경우는 두 명을 동시에 보내야 하잖아요. 그나마 공립유치원인 경우에는 비용이 적게 들지만 시설이 별로 없고, 입학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양육비를 생각하면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비용이 적게 들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더 많이 생겨야 합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찾을 수 있고,



정찬웅, 전유현 부부
(가정사역공동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 육아나 자아실현이나
- 엄마 혼자 '독박육아'
- 회사나 좋은 아빠 혹은 남편이나
- 믿고 맡길 시설이 없다
-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
- 외벌이 시작, 마이너스의 시작
- 늦게 결혼해서

이렇게 해주면 아이 더 낳겠다

- 맞벌이 부부 위한 맞춤보육시설 확충
- 안전하고, 전문적인데 비용까지 저렴한 기관
- 대학교 졸업까지 장기적 정책 마련
- 결혼,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 변화 교육
- 이성교제와 결혼 독려 프로그램 실시



김성환, 이현아 부부
(서초D공동체)

입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유치원 들어가려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까지 온 식구들을 동원해서 번호표를 뽑아야 합니다. 유치원 하나도 마음대로 못 보내는데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제가 전업주부로 아이 키우면서 느낀 것이 ‘엄마로 사는 것도 괜찮구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도 해야 하고, 돈도 어느 정도 벌어야 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회적인 지위 없이 엄마로 사는 것도 참 괜찮거든요? 엄마로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

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배웠고요. 엄마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정: “가정사역공동체에는 아이를 5~6명 낳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늦둥이를 낳는 가정도 있고요. 사람들은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낳았냐고 걱정하고, 질문하지만 그들은 분명 무엇인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낳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겠지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느끼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우면 자녀를 더 많이 낳을 것입니다.”

저출산대책포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송중환 장로: “먼저 결혼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iWe’라는 커플매칭 프로그램을 5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iWe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드림데이트(꿈희망미래재단에서 하는 이성주선 프로그램) 등 커플매칭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고, 사회에 적극 홍보해서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교회가 가진 장점들을 적극 활용하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김: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이를 낳아서 기를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부담과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도 포함됩니다. 둘째, 살 집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집값도, 임대료도 너무 비쌉니다. 셋째, 안정적인 직업이 없습니다. 불안정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는 것입니다. 일자리 마련과 주거 안정 정책은 정부가 아니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두란노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혼예비학교가 있습니다. 올해로 29년 됐습니다. 이곳을 거처간 예비부부들이 무려 25,500 쌍이나 됩니다. 7~8년 전 지상과 프로그램에서 결혼예비학교 수료한 부부 711쌍을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3커플만 이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두란노 결혼예비학교를 나온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이혼율을 비교했는데, 결혼예비학교를 나온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이혼율이 7분의 1밖에 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혼예비학교, 신혼부부학교, 젊은부부학교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대적인 가정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에 유익이 되고, 사람들이 저출산 타파를 위한 사회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야 합니다.”

/ 대담진행 김남원 부장, 정리 정현주 기자

저출산대책포럼 브랜드명 공모

‘저출산대책포럼’을 대신할 브랜드명 공모
공모내용: 새 이름은 영어, 한글 모두 가능하고 상표등록이 가능해야 함
응모자격: 온누리교회 교인이면 누구나
응모방법: 이름 설명 및 선정 이유를 적어 greenbi55@naver.com으로 송부
기간: 10월 23일 ~ 11월 13일
문의: 송중환 장로 010-3333-3010



“5대양 6대주를 위하여!”

온 누리와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온누리교회는 그 이름답게 온 누리와 선교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다.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대양 6대주를 위하여 눈물로 부르짖고 있다. 말 그대로 세계를 품는 기도모임이다. 온누리교회 곳곳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선교와 선교사를 위한 기도모임을 소개한다.



‘세계를 품는 기도모임’이라는 수식어가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미주, 오세아니아, 유럽 등 5대양 6대주를 위한 기도모임이 온누리교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시도 쉬지 않고 말이다.

온누리교회는 그 이름에 걸맞게 온 누리에 흠어져 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중보기도해주지 않는다면 전 세계로 뻗어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선교에 있어서 중보기도의 힘은 결정적이다. 온누리교회 선교가 중보기도의 힘으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보석보다 귀한 기도모임이 대륙별로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를 위한 기도모임은 9개가 있다. ‘티벳 중보기도모임’, ‘하니족 중보기도모임’, ‘북한중보기도모임’, ‘우즈베크어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모임’,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부탄, 네팔, 파키스탄, 몰디브 7개국을 위해 기도하는 ‘서남아시아 중보기도모임’,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람퐁지역을 위한 ‘파키

스탄 중보기도모임’, ‘네팔 사랑 모임’, ‘람퐁 선교기도모임’도 있다. ‘이수공동체 선교사 기도모임’은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네팔뿐만 아니라 중동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

중동을 위한 기도모임은 5개가 있다. 이스라엘을 기도하는 ‘AG(Amazing Grace)기도모임’, ‘이스라엘 중보기도모임’, 터키를 위해 기도하는 ‘소아시아기도모임’, ‘김순중·천사랑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모임’,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하는 ‘아프가니스탄 중보기도모임’이 있다.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모임은 1개가 있다. 어머니들이 아프리카와 NGO 더멋진제상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더멋진 마리아 기도모임’이 바로 그것이다.

미주지역과 오세아니아 지역을 위한 중보기도는 해외비전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서부 지역 앨버틴,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산타모니카, 괌, 미동부 지역 보스턴, 네이퍼빌 시카고, 노스 시카고, 뉴욕IN2, 뉴저지,

기도모임	일시	장소	문의
티벳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꿈이룸	010-9219-1758
서남아시아 중보기도 모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 7시	출기도실	010-5004-3191
우즈베크어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모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 7시	꿈이룸홀	010-5034-0092
북한중보기도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신관 403호	010-8591-8236
하니족 중보기도 모임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B101호	010-3934-6684
람퐁선교 기도모임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꿈이룸	010-9443-9032
네팔 사랑 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Acts29홀	010-8932-9901
파키스탄 중보기도모임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오전 7시30분	신관 202호	010-2271-4898
이수공동체 선교사 중보기도모임	매월 마지막주 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	아론홀	010-6533-3314
AG기도모임	매월 셋째주, 넷째주 월요일 오전 10시	꿈터	010-3219-0612
	매월 둘째주 화요일 오전 10시	꿈아이홀	
소아시아 기도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Act29홀	010-5225-5522
아프가니스탄 중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선교관 201호	010-5664-0505
김순중,천사랑 선교사 중보기도 모임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후 7시	꿈이룸홀	010-7227-3823
이스라엘 중보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6시30분	Acts29홀	010-2739-3086
더멋진 마리아 기도모임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전 10시30분	아론홀	010-8744-2657
온누리선교를 위한 중보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출기도실	010-5415-4467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신관 403호	010-2723-1689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아론홀	010-3243-8786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출기도실	010-6361-2684
TIM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회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신관 301호	010-3243-8786

미북부에 포틀랜드, 앵커리지, 밴쿠버 온누리교회 해외비전교회에서 지역복음화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오세아니아를 위한 중보기도는 시드니와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해외비전교회에서 하고 있다.

유럽과 무슬림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도 1개

가 있다. 대륙뿐만 아니라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임들도 있다. ‘온누리선교를 위한 중보기도회’와 ‘TIM(두란노해외선교회)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회’가 바로 그것이다(자세한 내용은 표 참조).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사역칼럼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선교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선교는 불가능한 도전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언어와 문화, 세계관이 다른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일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 기적은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실 때 일어난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선교사들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구체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하나님은 온 민족과 열방을 품고 계시

기 때문이다. 성경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출 19:5)고 말씀하고 있다. 전 세계의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전 세계로 파송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교다. 바로 그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실하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로 자신을 제한하셨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선교현장에 가지 못한다고 해도 기도를 통해

기적 중의 기적을 이루는 ‘기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 기도는 현장에 나가있는 선교사들의 사역 못지않게 중요하다.

선교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은 누구보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체감하며 지낸다. 누군가가 자신과 섬기는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이루시고, 채워주신다.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깨닫게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일하신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세계선교는 완성될 수밖에 없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온누리교회는 기도를 쉬지 않는다. 수많은 기도모임이 있다는 것이 무척 감사하다. 10년 혹은 20년 동안 꾸준히 선교사와 선교지, 민족과 사회를 위해 부르짖고 있는 온누리교회 모든 중보기도팀에게 감사드린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 아직 선교기도모임에 참가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한 영혼을 기억하면서 동참했으면 좋겠다.



김홍주 목사
(2000선교 본부장)

황재명 목사의 이사야서 산책 4

이사야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구약성경 중에 이사야서는 시편과 더불어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계시하는 표현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이유로 이사야서는 ‘제 5 복음서’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또한 이사야는 ‘선지자 중의 왕자(prince of the prophets)’라고도 불리고 있다. 그 이유는 이사야가 왕족 출신으로 추정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성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원대한 신학적 주제와 내용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서는 창조부터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철저한 심판과 멸망에서 온전한 회복과 구속까지 이르는 구원신학의 전반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는 성경의 축소판이기도 하다.

이사야서의 전반적인 문맥을 보면 그 시작과 끝이 동일한 논조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조에서 시작해 새 창조로 끝맺는 것과 같이, 이사야서도 하늘과 땅(사 1:2)에서 시작해 새 하늘과 새 땅(사 66:22)을 향해 나아가는 구조

를 갖고 있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이 신앙의 본질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함은 파멸이라는 구원공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다.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보면 이사야 1~39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 공의와 심판을 강조함으로써 구약적 주제와 상응하고, 이사야 40~66장의 주제는 여호와와의 영광과 긍휼, 은혜와 소망을 강조함으로 신약의 주제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이사야서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큰 주제 아래 하나님과 이스라엘(하나님 백성)이 맺은 언약이 회복되고, 이루어져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럼,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확증하는 그 언약의 근거가 무엇일까?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 다윗 왕조의 혈통을 이어받은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남유다에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가 주어진 것으로 보아, 이사야서는 소위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다윗언

약’(삼하 7:8~16)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다윗 전승).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암 2:10)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선포의 근거로 모세의 출애굽 사건(출애굽 전승)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 이사야 1~39장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사야서는 출애굽 전승 대신, 다윗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종말론적 구원(다윗 전승; 사 9:~1~7, 11:1~10, 29:1~8, 32:1~8 등)과 그 구원은 시온(예루살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시온 전승(사 1:8, 2:3, 3:16, 4:4~5, 8:15, 28:16, 32:14, 51:11, 60:14, 66:7~8 등)을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 메시지의 근거 또는 출발점으로 선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예언은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 시작해서(사 1:1)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으로 끝을 맺고 있다(사 66:13, 20). 이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온을 온전히 회복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주어질 것을 계시하는 것이다. 특히 이사야 54장에서는 여호와께 대한 예배의 중심 장

소로서의 시온이 나타나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으로 반드시 되돌아올 것을 선포하고 있다. 이사야 60~62장에서는 이미 2장 3~4절에서 예언했듯이 여호와가 거하시니 시온은 세계의 중심으로 거룩하고, 정의로운 통치를 이루어갈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바로 그 시온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고 선포하시는 분이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태초부터 교회의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사야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요, 본질인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세워져가는 시온은 어떤 모습인가? 그곳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가?



황재명 목사
(강서공동체)

차세대에게 들려주는 성경 속 인물 이야기

알렉산더랑 클레오파트라가 성경에 나오나요?



▲ 카사 델 파우노 유적 벽면에 묘사된 알렉산더.
▶ 파피루스에 그려진 클레오파트라 7세.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암흑시대’ 혹은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일컫죠.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70식구 이후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침묵했던 것과 비슷해요. 신구약 중간시대를 알아야 신약이 제대로 열리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게다가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재미있는 사건들이 이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흥미진진하죠.

얼마 전 중학생 친구가 알렉산더나 클레오파트라가 성경에 나오냐고 묻더군요. 맞아요. 이 사람들은 신구약 중간사에 등장해 이스라엘에 지대한 영향을 준 인물들이에요. 전 세계를 움직였던 역사의 주인공인 것 같지만,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위한 조연으로 등장했다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주변으로 여러 나라가 등장해요.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로

마 제국 등이죠. 특히 영웅 알렉산더(알렉산드로스)가 등장해서 대제국 페르시아가 차지했던 모든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며 그리스 철학과 동방의 오리엔트 문명을 합친 헬라문화를 퍼뜨렸어요. 불세출의 영웅이었던 알렉산더는 서른세 살에 전염병으로 죽고, 그의 부하들이 그 넓은 땅을 나눠 맡아 다스리게 되요. 그중 프톨레미 왕조에서 등장하는 절세佳人(絶世佳人)의 흥미진진한 생애는 후대 창작자들에게 영감을 줘서 영화와 소설로 제작되지요. 그녀가 바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랍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클레오파트라를 두고 “그녀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도 미인으로 불릴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로마 장군들이 서로 싸우지 않아 지금과는 다른 역사가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당대의 영웅들과 결혼해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이집트의 자치권을 지켜낸 똑똑한 여왕이었다고 해요. 이집트에는 수없이 많은 왕조가 존재해왔어요. 클레오파트라 7세라는 그녀의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

을 가진 이집트 왕녀도 한두 사람이 아니었고요. 클레오파트라 7세가 속한 프톨레미 왕조가 기독교에 끼친 영향력이 꽤 크답니다.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 민족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프톨레미 왕조는 이스라엘에 선진 문물이었던 헬레니즘 문화를 소개하고, 화해정책의 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해 <70인역 헬라어성경>을 만드는데 공헌했어요. 성경 세계화의 초석을 세운 일이라고 하지요.

왕족은 왕족과 결혼할 수 있다는 이집트 국법에 따라 클레오파트라는 남동생과 결혼해 왕좌에 올랐어요. 남편이자 남동생인 프톨레미 13세가 왕권을 쟁취하려고하자 치열한 권력투쟁을 벌이지요. 기원전 48년, 클레오파트라는 남편과의 정치싸움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왕좌에서 쫓겨나요. 막다른 골목에 처한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를 침공한 로마의 최고 실력자 카이사르의 힘을 빌려 왕권을 되찾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유배 중인 클레오파트라는 당당히 카이사르를 만나러 갈 수 없었죠. 정복자 카이사르가 이집트 왕궁에 묵고 있다는 사실을 안 클레오파트라는 기상천외한 계락을 펼쳤어요. 신하에게 자신의 몸을 양탄자로 돌돌 말 것을 명령하고, 카이사르에게 선물로 가져다주라고 한 거예요. 큼직한 양탄자는 카이사르의 눈길을 끄는데 성공했고, 양탄자에서 나온 클레오파트라에게 완전히 반한 카이사르는 그녀가 이집트 여왕 자리를 되찾도록 돕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하자, 클레오파트라는 다음 상대로 로마 최고의 실력자로 부상한 안토니우스와 결탁하고,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와 대적하다가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

에서 패하게 되지요. 이 전쟁을 통해 옥타비아누스는 마침내 로마의 대권을 차지하고 팍스로마나(Pax Romana) 시대를 열고 로마 최고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존엄자)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의 로마 황제이지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듯 클레오파트라와 정적관계였던 옥타비아누스의 명령을 따라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의 출생신고를 하러 갔다고 생각하니 참 재미있죠?

예수님과 같은 나이만큼 살았던 불세출의 영웅 알렉산더나 세기의 여인 클레오파트라, 그녀의 남자들인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 로마의 존엄자로 칭송된 옥타비아누스 등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들여다보면 아름다움과 권력을 갖춘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사야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에요. 세상의 제국 또한 하나님 나라에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민족의 영광’이란 뜻을 지니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민족의 영광은 고사하고 독사에 물려 죽을 정도로 비극적으로 생애를 마쳐요. 하지만 온 누리에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His Story)는 영원해요. 이러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니, 진정한 역사(History) 교과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이제는 확실히 알겠죠?



곽상학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고레다라 마을 우뚝 솟.”

네팔의 산골마을을 찾아갔다. 수도 카트만두에서 차를 타고 7시간을 달리고, 산길을 갈 수 있는 지프차로 갈아타고 2시간을 더 달렸다. 포장도 되지 않은 굽은 대로 굽은 산길을 오르고 또 올랐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고레다라 마을이다.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이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해 네팔에 대지진이 났을 때부터 소중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고레다라 은혜교회

그 친구의 이름 ‘NGO 더멋진세상’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마5:14).

눈동자가 머무는 곳마다 작품이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설산들이 한눈에 보이고, 고지대에서 내려다보는 절경이 마음을 한 순간에 빼앗아갔다. 그 맑은 공기, 풀 냄새, 지저귀는 새소리도 참 좋았다. 이 아름다운 경치보다 보는 이들을 더 매혹하는 장면이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을 숭배하는 네팔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묵도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고레다라 마을에 살고 있다.

비극이 온누리교회와 네팔 고레다라 마을을 만나게 했다. 2015년 4월 25일 네팔에 진도 7.8 대지진이 발생했다. 터전이 한 순간에 지옥으로 바뀌었다. 건물들이 눈앞에서 무너졌다.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복구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신음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아프고, 슬프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 친구가 손을 내밀었다. 그 친구의 이름이 NGO 더멋진세상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지진피해 복구에 큰 힘을 보탤다.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 그것만으로도 값어치 없을 만큼 큰 빛을 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 올해 4월부터 고레다라 마을에서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52가구에 그림같은 집이 생겼고 앞으로 30가구에도 멋진 집이 생길 예정이다. 학교와 교회도 각 1동씩 세웠다. NGO 더멋진세상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아름답게 변화되었다. 마을의 변화는 새로 지은 집뿐만이 아니었다. 주민들의 마음도 달라졌다. 새로운

꿈을 꾸고 새 삶을 영위하기 시작했다. NGO 더멋진세상이 준 용기 덕분이었다. 전도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했다. 12명에 불과하던 고레다라 마을의 기독교인이 지금은 90명까지 늘어났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대지진 그 후, 고레다라 마을에서 생긴 일

고레다라 마을은 해발 1,440미터에 위치해 있다. 320여 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힌두교인들이 많다. 이 마을 길목에 들어서면 수백 년 된 보리수나무가 보인다. 그 보리수나무 너머 언덕에 고레다라 마을이 있다. 한 폭의 그림 같고, 생기가 가득 넘친다. 농작물들이 푸른빛을 뽐내며 자라고 있고, 파란색 지붕의 주택들이 즐비해있다. 마을 오른쪽 언덕에는 노아의 방주가 그려진 학교가, 마을 왼쪽 언덕에는 십자가가 우뚝 솟아있는 고레다라 은혜교회가 있다. 파란색 지붕의 주택들이 바로 NGO 더멋진세상이 고레다라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지은 집이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가구는 임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말이 좋아 임시주택이지 열악하기 짝이 없다. 평평한 땅에 나무를 세우고, 함석을 얹어 놓은 것이 임시주택이다. 가재도구라고는 새카맣게 그을린 냄비 하나가 전부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집은 나무침대가 있다. 하루빨리 더 많은 집을 지어 줘야 하는 이유다.

대지진이 네팔을 강타했을 때 고레다라 마을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 지역에 총 9개 마을이 있는데 유독 고레다라 마을의 피해가 컸다. 더 큰 문제는 대지진 이후 발생했다.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입은 윗마을과 아랫마을도 고레다라 마을을 외면했다. 고레다라 마을 주민들이 카스트 계급제도에서 가장 낮은 ‘수드라’ 계급이었

기 때문이다. 네팔 정부도 주요 도시들을 복구하느라 외진 지역인 고레다라 마을까지 도와줄 여력이 없었다. 그렇게 아슬한 시간이 계속 흘렀다. 하루, 이틀, 사흘, 보름, 한 달... 이제는 “누군가 도와주겠지”라는 희망조차 품지 못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고레다라 마을을 찾아왔다. 왼쪽 가슴에 태극기가 그려진 옷을 입고 찾아온 이들은 NGO 더멋진세상이었다. 처음이었다. 그 먼 곳까지 찾아와 구호품을 주고, 위로해준 사람들이 말이다.

NGO 더멋진세상 대원들은 고레다라 마을에 처음 갔을 때의 참사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서든 지원이 도와야 했다. 그래야 그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진피해 복구를 하면서 곧바로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에 돌입하려고 했다. 그런데 시작부터 난관이었다. 네팔 정부를 설득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다. 해발 1,440미터 산 속에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 것 자체가 난관이었기에 현지인들조차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네팔 정부를 설득했고, 현지 사정에 맞는 건축물, 건축자재, 자재운송 방식까지 검토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그 시간 동안 고레다라 마을 주민들은 새로운 마을이 생긴다는 희망으로 버티고 또 버텼다. 그때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나고 물어도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떠올리기조차 싫은 기억인 것이다.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교회였다. 아무도 찾아오지도, 도와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교회만이 그들을 위로했다. 마을 지척에 있는 힌두교 사원도, 정부도 모른척 하는데 교회는 달랐다. 양철로 열기설기 지은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렸고, 위로받고 싶은 주민들이 하나 둘 늘어갔다. 지진이 났을 당시 12명이던 교인들이 지금은 90명을 훌쩍 넘는다.

NGO 더멋진세상이 2016년 4월 고레다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다.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구당 7.6평의 집을 지어준다는 내용이었다. 일가가 모여살 수 있게 다세대 가구도 지어주기로 약속했다. 흙과 돌로 쌓은 집이 아니라 튼튼한 철근으로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민들의 환호성을 터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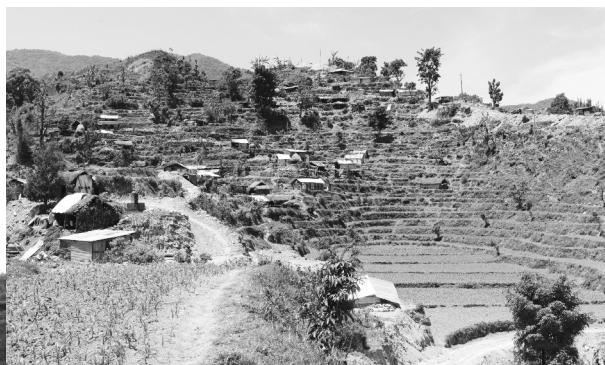
20살 청년 프랭의 꿈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바로 건축이 시작됐다. 트랙터 다섯 대로 건축자재를 운반했다. 아침부터 새벽까지 자재를 나르고, 집을 지었다. 마을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NGO 더멋진세상 대원들과 주민들이 하나 되어 함께 집을 지었다. 외지에 나가있던 청년들이 고향에 새로운 마을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로 돌아와 동참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임금도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것보다 넉넉하게 지급했다. 임금은 마땅한 수입이 없던 주민들에게 생명수 같았다.

올해 20살인 프랭도 NGO 더멋진세상을 만나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됐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이다. 그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자기만의 집을 짓고 싶기 때문이다. 그는 일찍 학업을 그만두고 결혼을 했는데, 마땅한 기술이 없고, 학교 졸업장도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 집에서 얹혀살고 있다. 그런 그가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마을을 재건하면서 수입이 생기고, 독립 하겠다는 꿈도 가졌다.

“꾸준히 돈을 벌어서 아직 학생인 아내 뒷바라지를 하고 싶어요. NGO 더멋진세상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는 나쁜 남편으로 살았을 거예요. 우리 마을과 저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해 준 NGO 더멋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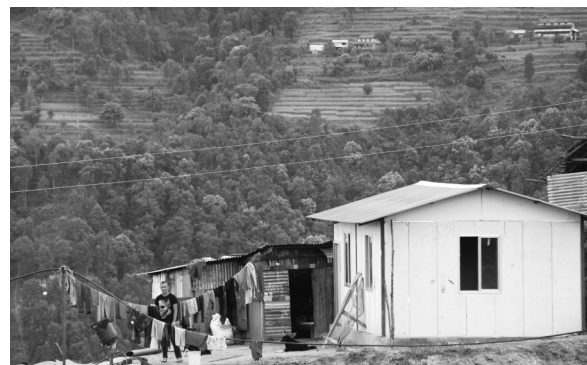
“은 십자가에 불이 켜지고”



피해 복구 전 마을전경



현재 고레다라 마을



신축주택



신이 난 아이들



새로 세운 학교



고레다라 은혜교회 예배모습.

상이 정말 고마워요.”

그는 다음 주일에는 꼭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했다. 프랩처럼 고레다라 마을 주민들은 새 집과 꿈보다 더 큰 선물도 받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바로 그것이다.

그 마을에 생긴 변화, 그 이름 예수

기자가 고레다라 마을을 방문했을 때 네팔은 힌두교 축제 ‘다샤인’ 기간이었다. 다샤인은 악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한 힌두교 여신 두르가를 숭배하고 찬양하는 축제다. 네팔 전역에서 15일 동안 잔치가 벌어진다. 고레다라 마을에서도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소와 돼지를 잡고 풍성한 잔치를 벌이고, 아이들은 마을 어귀에 만든 커다란 그네를 타고 있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고레다라 마을 주민들은 이 축제 기간에 공물을 바치고, 힌두교식으로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축제 당일 아침에 고레다라 은혜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데 주민들을 볼 수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고레다라 은혜교회 람바들 집사는 정말 놀라운 변화라고 간증했다.

“다샤인 축제 기간이면 15일 동안 마을 사람 모두가 술에 취하고, 노름을 하고, 서로 싸우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모습을 좀처럼 찾아 볼 수가 없어요. 마을이 눈에 띄게 변화되고 있어요.”

람바들 집사의 간증처럼 고레다라 마을이 조금씩 복음화 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인사말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고레다라 마을에서 만난 주민들은 “저이며시”라고 인사를 건넸다. 보통 네팔의 인사말은 “나마스떼”이다. ‘저이며시’는 ‘나마스떼’와 큰 차이가 있다. 나마스떼는 “당신의 마음에 있는 신께 경배를 드립니다”라는 뜻이고, 저이며시는 네팔 기독교인들의 인사법이다.

‘저이’는 ‘승리’, ‘머시’는 ‘메시아’를 뜻한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라는 의미이다.

람바들 집사가 간증을 이어갔다.

“마을 주민들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힌두교인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매주 한 두 명씩 교회에 출석합니다. 5년 이내에는 주민 90%이상이 교회에 출석할 겁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토요일 아침, 고레다라 마을에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넘쳤다. 하얀 옷을 입은 아이들이 힘차게 복을 치면서 찬양을 시작했다. 손뼉 치며 찬양하는 아이들과 할아버지, 성경책 속에 넣어둔 헌금을 꺼내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였다. 고레다라 마을이 이 땅에 입재 한 천국 같았다.

고레다라 마을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마을 주민 모두가 힌두교 신자였다. 현지인 허리 목사가 고레다라 마을에 복음을 전했고 마을 부녀자 3명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것이 이 마을에서 맺힌 첫 번째 열매다. 허리 목사와 사두람 목사가 1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섬겼다. 그러자 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 12명의 마을주민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대지진 이후 고레다라 마을에 기독교인이 급증하고 있다. 평생 예수나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체험하고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 약 90명의 주민들이 기독교로 개종했고, 매주 1~2명이 새롭게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카스트 제도의 최상위 ‘브라만’ 계급 모자도 교회에 나온다. 수백 년간 쌓아온 제도가 교회를 통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건축한 고레다라 은혜교회가 벌써 발 디딜 틈이 없다.

고레다라 은혜교회 성도 90명 중 40여 명이 부녀자인데 그녀들의 영향으로 일가족이 예

수를 믿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예배드릴 때마다 힘차게 복을 치는 너빈의 가족도 엄마를 따라 교회에 왔다. 너빈의 가족은 고레다라 마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신실한 가족이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너빈의 아버지는 알코올중독이었고, 엄마는 가출해서 판 살림을 차렸었다. 너빈과 동생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을지 상상조차 안 된다. 자녀들이 그리워 집을 나갔던 엄마가 돌아왔지만 가정불화는 여전했다. 그런데 너빈의 엄마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적이 일어났다. 너빈과 여동생은 찬양팀, 아빠는 집사로 변화된 것이다. 너빈의 꿈이 고레다라 마을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다.

“교회에 다니기 전까지 우리 집이 이렇게 화목한 가족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신 사랑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사가 될 거예요.”

NGO 더멋진세상을 만나기 전까지 고레다라 마을 주민들은 지역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위상이 달라졌다. 그 지역에서 가장 멋진 마을로 손꼽히고 있다. 어디 그뿐이라. 네팔 전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생생한 마을이 되었다. 고레다라 은혜교회 십자가에 불이 켜지면 그 지역 어디서나 십자가를 볼 수 있다. 고레다라 마을은 지리적으로도 복음을 전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고레다라 마을 주변 지역을 스리나곳 마운틴이라고 하는데 그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대지진 이후 스리나곳 주민센터와 보건소가 고레다라 마을에 생겼다. 이웃 마을 주민들이 좋은 삶은 고레다라 마을을 방문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고레다라 마을에 온 이웃들이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고, 그 비결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네팔의 기독교 역사

어떻게 방해해도, 어떻게든 전해진다

네팔은 쇄국정책으로 오랫동안 외국문물에 문을 열지 않았다. 선교사들이 네팔과 인접한 인도 동쪽의 국경지역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다. 1950년 혁명기를 거치고 200년 만에 네팔이 기독교에 문을 열었다. 인도 국경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선교훈련을 받은 네팔 사람들이 선교센터와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네팔은 힌두교를 국교(國敎)로 삼고 따른다. 종교법이 존재하는 네팔에서 선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네팔에 민주화와 함께 종교의 자유가 찾아왔다. 2008년 네팔 왕정이 무너지고,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었다. 네팔 정부는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민속종교, 기독교 등 주요 5대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그 후 네팔의 복음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네팔은 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복음화 속도가 빠른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네팔 기독교인들과 선교단체는 의료선교, 농업선교, 산지선교, 다음세대 영적 리더십을 키우는 미션스쿨 등을 세우고 있다. 본격적으로 한국인 선교사들이 네팔에 관심을 가진 것은 15년 정도 되었다. 한국인 선교사들은 네팔에서 주로 교회사역, 신학교, 학교사역, 고아원사역, 제자양육사역, 성경번역사역 등을 하고 있다. 네팔 당국에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없도록 종교법을 바꾸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NGO를 통한 선교가 많아지는 추세다. 세상이 어떻게 방해해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네팔 땅에 복음을 전하신다. / 김원 선교사(TIM)

지역사회가 칭찬한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

주민, 성도, 어린이 모두가 만족 ... “더 자주 했으면”



지난 9일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이 실시중인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난 주일(9일) 실시한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택시기사 정다움씨는 “교회가 앞장서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을 해줘서 너무 좋다”고 했고, 신동아아파트 경비원 박동우씨는 “차가 안 막히고, 사람들이 도보로 편하게 다니는 모습이 보기 좋다”면서 이런 캠페인을 더 자주 했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역사회로부터 칭찬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다.

일산에서 온 가족이 지하철을 타고 교회에 왔다는 함우석(일산공동체) 성도는 “지역주민의 입장을 헤아려보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주차위원 홍진섭

(중종로공동체) 성도는 “힘든 일도 섬김으로 하면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어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왔더니 아이들도 덩달아 신이 났다. 차세대를 위한 기차, 바이킹,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가 설치된 덕분에 마음껏 뛰어 놀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수명이 아닌 사명이 끝날 때까지

힘이 많고 자격 없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할 사명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진심 어린 기도와 격려를 해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 3:16).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셨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며 생명을 아끼지 않는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무엇보다 깨끗하고, 정직하며, 자신의 유익을 취하지 않는 무익한 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명이 아닌 사명이 끝날 때까지 충성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사무엘 목사
(양재차세대 유치부)

사회선교부, ‘부채탈출 119’ 참가자 모집

사회선교부에서 제3회 ‘부채탈출 119’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채탈출 119는 러빙유 캠페인의 일환으로 외부 재정상담 전문가와 협력해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11월 6일까지 사이트(<http://sjm.onnuri.org/loving-u-debt/>)에서 ‘가계부채상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업로드하면 된다. 학자금 대출, 실직이나 실업, 생계비 조달, 과소비 등으로 심각한 부채 위기에 처한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부채탈출 119에서는 초기상담 및 응급조치, 부채 문제 정밀진단 및

해결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시, 실행지원 및 사후 관리상담 등을 통해 부채로부터 탈출을 도와준다.

한편, 부채탈출 119에서는 성경적 말씀을 기초로 재무적, 법률적 부채상담을 해 줄 전문상담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자격자, 신용상담사 자격보유자, 재무상담 3년 이상 경력자, 재무자격증(AFPK, CFP 등) 보유자, 기타 신용상담 및 재무상담 관련 경력자가 대상이다.

문의: 02-3215-3434

010-5550-3655(상담위원 모집)

/ 정현주 기자

오카야마 실행위원회 위원들 서울방문

서빙고 온누리교회, CEO 스쿨, CGNTV 등 방문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실행위원회 위원 6명(쿠사이 목사, 요시오카 목사, 마키 목사, 나카오 목사, 사토 목사, 쇼노 형제)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온누리교회를 방문했다.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행사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고, 한일교류 프

로그램에 대한 후속모임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오카야마 실행위원회는 2박3일 동안 서빙고 온누리교회, CEO 스쿨, CCF 조찬 모임, 요셉행전 집회 참석, CGNTV 등을 방문했다.

실행위원회 위원들은 러브소나타

오사카 집회에서 사용할 화관을 제작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찾아가 감사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요시오카 목사는 “온누리교회의 러브소나타 집회와 CEO포럼에서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 세상 속에서 일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성숙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서빙고 안전위원회, 안전체험교육 실시

서빙고 안전위원회가 성도, 목회자,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

10월 9일 주일1부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골프장 마당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이 실시됐다.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제세동기사용법), 지진영상체험 및 대처요령, 해양안전사고 등을 교육 했다.

송세준(10세) 어린이는 “처음에는 소화기 소리가 너무 커서 놀랐는데 이제는 불이 나면 바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심폐소생술체험에 참여한 전영율(성북공동체) 성도는 “지나가다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배운 것을 꼭 활용하고 싶다”고 했다.

10월 11일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과 골프장 마당에서 목회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이 실시되었다.

조청구 장로(서빙고 안전위원장)는 “안전체험교육은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 세상에서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체험교육에 참가한 정성훈 목사(Pole2공동체)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소정 기자

나에게 일대일이란 이다

일대일사역팀 30주년 기념 이벤트 공모전

일대일사역팀 설립 30주년을 맞아 서빙고 일대일사역팀은 오늘(16일)부터 11월 6일까지 3주 동안 ‘나에게 일대일이란 이다’를 주제로 이벤트 공모전을 연다. 빈칸에 들어갈 말과 그 이유, 이름, 공동체, 전화번호를 적어서 주일 서빙고 로비에 있는 일대일 안내데스크나 일대일나눔방(식당, 미션홀)에 비치된 응모함에 넣으면 된다. 당선되면 소

정의 상품이 주어진다. 금상 식사권 2매(1명), 은상 영화티켓 각 2매(3명), 동상 커피쿠폰 각 2매(20명)를 지급한다. 당선자는 11월 13일(주일) 일대일 안내데스크 및 온누리신문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욱 팀장은 “재미있고, 감동적인 응모들을 기다린다”면서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이소정 기자

온누리 IT인의 밤 ‘로그온’ 개최

온누리 IT인의 밤 행사 ‘로그온’이 오는 11월 10일 저녁 7시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IT인의 밤 행사 ‘로그온’은 IT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위한 모임이다. 이재훈 담임목사와 고건 장로가 IT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예정이다.

문의: 이경희 자매

010-7385-0626



오사카 기 · 도 · 제 · 목

- 10월17일(월) 러브소나타 오사카를 통해 일본에 부흥의 불길에 일어나길
- 10월18일(화) 협력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실행위원들이 하나 되도록
- 10월19일(수) 러브소나타 집회장에 준비된 영혼들로 가득 차기를
- 10월20일(목) 스태프들에게 강건함 주시고, 일본향한 마음이 생기도록
- 10월21일(금) 이재훈 목사님, 강사들, 출연자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 10월22일(토)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고, 중보자, 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 10월23일(주일) 집회 기간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이뤄져 열매가 맺히도록

제1119호 | 2016년 10월 16일(주일)

■ 온사랑합창단 가족 음악캠프 간증



/ 김경숙 성도(송파공동체)

참 좋은 날,
참 좋은 이들과 함께

10월 둘째 날 온사랑합창단 공동체가 가평에 있는 좋은아침 연수원으로 1박 2일 캠프를 갔다. 장로님의 격려와 목사님의 기도로 캠프가 시작되었다. 사실 내가 이번 캠프에 참석하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다. 늘 분주하고, 언제 돌풍을 일으킬지 모르는 아들과 함께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은 아주 평범한 일에도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 캠프에 참가하기 일주일 전 지하철에서 아들이 실종되는 일도 있었다. 6시간 만에 내 품으로 돌아왔지만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일로 캠프에 참여하는 것이 망설여졌다. 그래도 아들이 어렵게 온사랑합창단 공동체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냈다. 그렇게 나와 아들의 ‘2016 온사랑 가족 음악캠프’가 시작됐다.

캠프에 출발하는 주일 오후 은혜의 단비가 대지를 시원하게 적셨다. 숙소로 도착했더니 가을비를 머금은 초록빛 초목들이 우리를 맞아 주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배는 가히 아름다웠다. 울려 퍼지는 단원들과 부모님들, 선생님들의 찬양소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게 해주었다.

사실 그곳에서 나는 돌풍과 같은 아들 덕분에 쉴 틈이 없었다. 늦은 밤까지 자석처럼 아들과 붙어 다녔다. 울동을 배우는 동안에도 아들 옆에 꼭 붙어서 지도했다. 힘들 텐데도 힘차게 찬양하고,

열심히 율동하는 단원들을 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 다음 날 실내에서 미니 운동회가 열렸다. 장소가 좁아서 그런지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 날 같았다. 부모와 선생님, 자녀들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 하나가 되었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쁨을 만끽했다.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 빠른 박자에 반응하며 열정적으로 춤을 추던 아들이 돌아오는 차에 타자마자 곧바로 잠이 들었다. 잠든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일이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그 열매를 바라본다.”

눈물로 씨 뿌리는 일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더욱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엄마가 되자고 다짐하고 또 했다. 나의 이러한 소망처럼 차창 밖으로 펼쳐진 가을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다. 아들을 향한 꿈을 꾸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을 때 한 구절 말씀이 떠올랐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13).

참 좋은 아침, 참 좋은 캠프를 다녀온, 참 좋은 온사랑합창단을 사랑한다.

■ 유아세례 간증



/ 아이: 백시는 부: 백갑식 모: 홍은영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시은이’

나는 남편과 세 번 만나고 결혼약속을 했다. 세 번 만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 해주신 배우자가 맞는지를 구했다. 그때마다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다. 내 마음속에 축복된 결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축복된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바로 선물해주실 거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애가 타기 시작했다. 당시 학위과정 중이어서 집에 오면 밤 10시가 넘었다. 남편도 퇴근시간이 밤 10시나 11시였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병원에 계시던 시아버님을 만나러 갔다. 우리 부부는 여유 있게 쉴 수 있는 날이 없었다. 핑계를 대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아이를 더 기다렸는지도 모르겠다.

아이를 기다리면서 3년이 지났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인공수정 등 사람의 힘으로 노력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을 제한했고, 교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인공수정 2번, 시험관 1번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실망감이 커져갔다. 그러나 분명히 자녀를 주신다는 말씀을 주

셨다. 마음에 확신도 있었다.

시험관 시술 2주차 때였다. OBC 조장님이 이 과정이 끝나기 전에 임신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다. 속으로 ‘그게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닌데’ 라면서 웃어넘겼다. 나와 비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가 생길 거라는 말에 비웃었던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결국 시험관을 실패했다. 그 다음 달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아보았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생각해서 시은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첫 아이 임신이 힘들었던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은 둘째를 바로 보내주셨다.

지금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 아이를 돌보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아등바등하며 아이를 양육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삶이 참 감사하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 주신 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친히 양육하시는 가정을 경험하기를 소망한다.

■ CMN 토브팀 의료봉사 간증



/ 김택수 성도(마포공동체)

기도하고, 기대한다

토브팀은 CMN(Christian Medical Network) 소속 양재 의료봉사선교팀이다. ‘토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좋다’는 뜻이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하신 단어와 같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토브팀이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겸손하게, ‘예수바보’ 정신으로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토브팀은 내과, 수기(마사지), 한방, 초음파 검사, 치과, 약국, 미용, 중보기도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월 4째 주일 오후 가리봉동에 있는 한중사랑교회 성도들은 섬기고 있다. 이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온 동포들이다. 교회가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의지할 곳 없는 한국 땅에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모이는 장소다. 주일은 그들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랜만에 친지들도 만나는 즐거운 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일에는 더 많은 중국동포들이 교회에 모인다.

그들은 험한 일을 하면서 몸을 살피지 못해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토브팀이 찾아가는 주일만 되면 많은 분들이 의료봉사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토브팀은 도착하자마자 이곳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와 찬양을 한다.

초음파검사팀은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브릿지전도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한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사역에 보람을 느낀다. 내과진료팀은 당뇨, 고혈압 환자들을 검사하고, 처방해준다. 그런데 환자들이 수치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우리의 이야기를 상당히 잘 들어주는 편이다. 기도해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수기팀과 약국팀, 미용팀, 치과팀, 한방팀까지 모두가 정말 귀하다. 묵묵하게 섬기는 모습에서 작은 예수님을 보곤 한다. 섬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내면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께 더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아름다운 사역에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 아가페기독병원을 도움시다

가능할 수 없는 원대한 계획

지난 여름 3주간 몽골에 다녀왔다. 수도인 울란바타르에 위치한 아가페기독병원(AGAPE CHRISTIAN HOSPITAL, 병원장: 박관태 선교사)이 숏한 어려움을 뚫고 드디어 개원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교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 위해서였다. 아가페기독병원은 혈액투석과 호스피스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선교병원이다.

지난 8월 말부터 인공신장실을 오픈해 혈액투석을 시작했다. 병원 설립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박관태 선교사에게 그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실현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몽골에는 신장병 환자가 많다. 짜게 먹는 것이 신장병 발병의 원인이라고 한다. 또한 성사구체신염이 진행되면 만성신부전이 되는데, 몽골에서는 이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요즘 몽골에서 당뇨병 환자가 폭증하고 있고 이와 함께 신부전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몽골에는 약 1,000명의 신부전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000여 명의 투석기가 필요한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불과 150여 대로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투석비용도 만만치 않다.

1회 비용은 9만 원 정도이다. 일주일에 3회

씩 한 달이면 1백만 원이 넘는다. 몽골의 월평균수입이 3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게다가 기계도 너무 노후되었고, 싸구려필터를 사용해서 투석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아가페기독병원에서는 현재 재료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혈액투석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환자들은 그것조차도 부담스러워 한다. 1년에 약 3천 개의 필터가 필요한데 아가페기독병원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3만원이면 필터 1개, 즉 1명이 1회 투석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해 보면 이 병원만큼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은 없다. 혈액투석 환자들은 투석하는 데 기본 4시간은 소요되고,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도 거의 병상에 누워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 이름에도 나타나 있듯 이곳에서는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우리의 작은 도움의 손길이 장기적으로 무료투석을 꿈꾸는 아가페기독병원에도, 몽골 투석환자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다. 그것은 그 끝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도 동참하는 일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조선녀 집사(강남C공동체)

장로칼럼

가을이 여름에게



이영복 장로
(SNS공동체 대표멘토)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고 맞이한 가을 하늘은 더없이 푸르다. 공기도 신선하다. 10년도 훌쩍 지난 2001년 가을, 서울에서 전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논산 벌곡을 지나면서 쓴 ‘적신(赤身)으로’라는 자작시가 떠오른다.

“벌곡을 지나는 고속버스 창밖으로 감나무가 하나 둘 눈에 든다. / 여름 내내 녹색 나무들의 군상 속에 묻혀 있었는데 / 농(濃)익기 시작한 주홍 열매로 해질 무렵 등대처럼 정체가 드러났다. / 지금은 그나마 등성등성 남은 잎으로 속살은 가릴 수 있지만 / 아, 잎이 다 지고 나면 적신(赤身)으로 파란 하늘을 대해야 할 텐데.”

이 졸시(拙詩)에는 40대 중반의 한 남자가 그간 살아오면서 빚어낸 부끄러운 삶의 자취들이 가을날 주홍 감처럼 감추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데 따른 당혹감이 스며있다. 또한 온갖 위선과 격식과 체면의 잎들을 다 떨어뜨리고 마침내 벌거벗은 몸으로 파란 하늘을 대하게 될 날도 그리 멀지는 않은 듯해 보여 서둘러 그 날을 준비해야겠다는 절박함도 묻어난다.

그때나 지금이나 계절은 같은데 가을을 보내며 앓는 가슴앓이는 오히려 더 심해진 나를 발견한다. 날아가는 듯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기성찰이 가져다주는 자괴감과 열매에 관한 조바심이 더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라고 절규하던 사도 바울의 심정에 절로 공감이 간다. 그래도 자신의 탄식에 대한 바울의 답을 알기에 가을이 결코 우울한 시간으로 오래 머물지 않아 감사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롬

7:25)라는 바울의 고백이 영원한 해답이다.

나는 3년 가까이 SNS공동체 대표멘토로 섬겨왔다. 청년기를 보내고 인생의 가을에 있는 멘토가 여름을 보내는 청년들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아졌다. SNS는 ‘소금과 빛(Salt and Shine)’ 약자로 지은 이름이지만 ‘여름과 여름(Summer and Summer)’이라는 이름도 참으로 잘 어울리는 공동체다. 청년부흥의 역사는 오직 위로부터 부여지는 것임을 믿는 그들이다. 30대 초반의 또래 청년이었던 원유경 목사님과 함께 약 80명으로 시작된 공동체가 3년 만에 10배가 넘는 900여명으로 늘어났다. 매주일 오후 4시 반부터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그렇게 뜨거울 수 없다. 서빙고 비전홀이 넘치기 직전이다. 나는 SNS공동체를 비롯한 온누리교회 모든 청년들의 여름이 더 뜨거워지기를 기도한다. 나아가 그 영적 여름이 온누리교회만이 아니라 온 서울과 온 한국과 온 세계로 확장되기를 바란다. 일찍이 하용조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10만 청년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한 성인세대의 전략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소위 ‘N포세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청년들이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많은 만큼 질문도 많은 것 같다. 빠지지 않는 질문은 인생의 여름과 가을을 어떻게 보내고 준비해야 하는지는 것이다. 인생경험이 많은 멘토를 존중해서 묻는 질문인데도 답하기가 부담스럽다. 무슨 답을 하든 나 자신의 점수부터 매겨야 하기 때문이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나의 대답은 십중팔구 ‘가을이 없는 여름은 무의미하고, 여름이 없는 가을은 공허할 뿐’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적신으로’라는 졸시를 인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정체가 드러난 감나무 전체를 가죽 천막으로라도 덮어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100% 필요하다. 연약함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는 가을 멘토의 배짱이라고나 할까.

권사칼럼

다 이유가 있다



김유정 권사
(서빙고공동체)

내 꿈은 성악가였다. 안타깝게 그 꿈은 접어야 했지만 지금 나는 성악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오케스트라 협연에 뽑혀 공연할 기회가 생겼다.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공연이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 연습과정에서 노래가 너무 안 되는 것이었다. 공연 날은 다가오는데 초조해져 갔다. 그때 친구가 나를 예수전도단 집회에 데려갔다. 나는 영문도 모르고 따라 간 그 날 집회에서 성령님을 만났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렀고, 나의 죄를 고백했다. 뜨거운 성령님을 체험하고 매주 그 집회에 참석했다. 또 시간만 나면 대학교 식당 2층에 가서 기도를 했다. 의지할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공연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다.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버거웠다. 다시는 노래를 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내가 다시 노래를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다짐하고 또 했다. 곧바로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갔다. 그리고 다시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가 1988년이다. 그때 온누리교회에 왔다. 그때까지 내 마음 한구석에는 ‘실패자’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생각은 나의 입을 다물게 했고, 찬송이 불러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생 때 다시는 노래를 하지 않겠다고 한 나의 말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거부하고 땅에 묻어둔 것을 회개했다. 나는 성령님께 “학교에서 배웠던 발성법, 호흡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하나 가르쳐 달라”고 간구했다. 홀로 방에 앉아 찬송가와 경배와 찬양 곡을 첫 장부터 차례로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고,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위로,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사슬들이 하나씩 풀려 나갔다. 낭비했다고 생각했던 성악공부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셨다.

어떤 분이 내게 중창단을 같이 하자고 연락을 했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중창단에 들어갔다. 그런데 얼마 못가 잘 이어오던 중창단에 문제가 생겼다. 팀장이 나가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그 만들 수 없었다. 기도하면서 팀원을 한두 명씩 초청하다보니 2~3명이었던 팀원이 어느새 15 명으로 늘었고, 내가 팀장이 되었다. 그렇게 ‘주은혜중창단’이라는 이름으로 10년 넘게 사역했다. 지금은 권사 월례예배에서 찬양인도를 하고 있다. 지난 세월을 돌아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성악을 배우도록 하셨다는 것을 느낀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다.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에서 ‘실패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이 한 일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다.

나는 오늘도 찬양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랑, 소망,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간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신앙에세이



김윤식 목사
(여호수아공동체)

어느새 가을이 왔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를 안고 첫 단풍구경을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울긋불긋한 나무들을 보며 소멸의 아름다움을 즐기게 될 것이다. 한때는 짙은 녹음이 뿜어내는 생명력에 감탄했는데, 이제는 곧 떨어지는 이파리들을 보며 낭만을 누릴 것이라 생각하니 더위와 함께 사라져버린 듯한 지난 시간들이 아련하게 느껴진다. 어느 가수의 노랫말처럼, 우리는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는 것 같다. 변화는 매일 겪는 것이면서도 늘 낯설다.

‘피터팬’은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이다. 2004년에 개봉한 피터팬이라는

영화에서 피터팬과 함께하던 웬디가 네버랜드를 떠나는 장면이 있다. 인형 같은 미소년 피터팬이 예쁜 눈으로 바라보며 웬디에게 말한다. “가지마. 여긴 너무 좋잖아.”

언제나 재미있고 호감이 가득한 곳에 자신과 함께 있자고 이야기하는 피터팬에게 웬디는 “난 어른이 되어야 해”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때로 피터팬처럼 좋았던 자리에 머물며 좋았던 순간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에 맞는 때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전도서 3:11).

하나님께서 세상에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창조하셨다. 나뭇가지에 연한 이파리가 나올 때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잎이 시들어 낙엽이 될 때의 아름다움이 있듯이 모든 것에 는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다. 하나님은 변화하는 세상을 지으시고, 그 안에 다채로운 아름

다움을 주셨다. 사람에게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순간일지라도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계속 무엇인가를 갈망한다. 우리의 모든 갈망은 결국 영원에 대한 소망이다. 그런데 인간이 영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영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불사조 ‘피닉스’를 상상해냈으며, 진시황은 50년의 짧은 생을 살면서도 불로장생을 꿈꿨다. 만화영화 ‘은하철도 999’에는 몸을 기계로 만들어 영원히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처럼 인간은 영원을 갈망하면서도 늘 영원에 목마를 수밖에 없다. 전도서 3장 11절 하반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고 한다.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면서도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기에 영원을 측량할 수도, 인식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경험한 적도 없고, 성취하기도 어려운 영원을 사모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전 3:14)이다. 영원하신 존재는 하나님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아주 작은 부분일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영원하시고 만물에 총만하신 그분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작은 장치를 두신 것이다. 그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것이다.

주님은 모든 순간 가운데 예비하신 아름다움을 통해 영원하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분을 통해 영원에 대한 만족을 얻게 된다면 비로소 순간순간의 일들과, 반복되는 변화 속에 있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선선한 가을이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작은 온기의 즐거움 속에서 이날을 예비하신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길 소망한다.

영원을 사모하기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대언자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있는 주장을 의미합니다. 권세 있는 주장입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롬 8:34).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것은 실제로 오른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형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오른편이나 왼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엄, 권세,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하시는 기도는 이 땅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와 또 다른 차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기도하실 때는 권세를 갖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기도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기도하고 계시고, 대언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여기 타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이기에 저는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저들이 용서받기에 충분한 효과적인 값을 지불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대언과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심으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로서 그 중보 기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

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하게 하시는 그의 총만함이니라”(엡 1:20-23).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심으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분이 성도들의 머리가 되심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약속들과 권세와 능력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고,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무릎 꿇고, 입술로 시인하고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10~11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날이 오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실 때 그들 모두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능력 앞에 압도될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에 무릎 꿇는 자들은 비참한 고난을 경험하

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맞이하는 영혼들은 그분의 다시 오심이 기쁨이 총만한 날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이 ‘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삶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삶으로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시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을 어떤 분이라고 시인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하나의 사상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들로 구성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주님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그분과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마 10:32-33).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술이 주님을 주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이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고, 모든 입술이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기까지, 모든 입술이 주라고 고백하기까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엄마로 산다는 기쁨



전유현 성도
(가정사역공동체)

2012년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삶이 정지되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직장을 그만두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전공을 택해 대학원에 진학했다. 석사논문을 마무리하고 박사과정 진학을 준비하던 중에 첫째 아이를 임신했다. 겨우 석사학위는 취득했지만 새로운 일도, 박사과정 진학도 포기하고 육아에 전념해야 했다. 양가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아이를 맡길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아이를 돌리지만 키우고 어떻게 해서든 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의 완벽한 착각이었다.

시댁과 친정의 도움 없이 소위 ‘독박육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작은 생명을 나 혼자 24시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부모님도 남편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원망스러웠다. 그래서 찾아 나선 곳이 교회공동체다. 임신 중에 들었던 서빙고 헬로맘스쿨의 팀장님과 우연히 연락이 닿아 50일 정도밖에 안된 첫째를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헬로맘스쿨 스태프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와 섬기는 어머니, 자녀를 장성하게 키우고 나서 섬기는 어머니 등 다양한 엄마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엄마로서의 삶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다. 엄마로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드디어 첫째 아이의 돌이 지났다. 첫돌만 지나면 아이를 맡기고 정지된 내 삶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던 나였는데 달라져 있었다. 헬로맘스쿨을 통해 엄마로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이의 엄마로서 온전히 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출산과 동시에 반강제적이고 억지로 육아를 시작할 때와는 분명히 달랐다.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로서 살고 있다.

지금은 멋지게 일하시는 친정어머니는 내가 10살이 될 때까지 전업주부로 살았다. 유치원

등하굣길과 비가 오는 날 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늘 엄마가 있었다. 무섭고 엄한 분이셨지만 어머니가 전업주부로 살면서 나를 길러주시지 않았다면 나의 어린 시절이 더 춥고 외로웠을 것 같다. 어머니가 다시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그 자리를 외할머니가 채워주셨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외할머니의 사랑은 분명히 달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두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유일한 존재들이다. 두 아이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갈 때마다 함께할 수 있는 것, 아이들의 식탁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것 등 아이들과 보내는 모든 시간이 감사하다.

세상은 그동안 나에게 보람직한 직업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일을 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고, 배운 것을 사회에서 써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직업이 곧 자존감이고, 직업이 곧 정체성인 것처럼 생각하게 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

은 내 존재만으로 존귀하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가장 선하고, 나를 가장 빛나게 하는 일터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전업주부로, 아이들의 엄마로 불러주셨다. 오늘도 내가 아이들의 밥을 준비하고, 집 청소하고, 아이들을 목욕시킬 때마다 “너는 존귀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소중한 아이들을 맡겼다. 이 아이들의 모든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너에게 허락하였다”고 말씀하신다. 엄마라는 이 귀한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나는 오늘도 그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가정에서 아이들만 돌보면서 지낸 시간이 만 5년이 되어간다. ‘내가 이대로 가정에 주저앉아 사회로 나가지 못하면 어쩌나, 아이들이 조금 더 커서 내 손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되면 나는 어디에서 이 세월을 보상받을까’라는 생각들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정으로 보내셨다면, 또 다른 때에 내가 필요한 곳으로 불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과 다르게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아이들과 더 행복하게 지내보려나.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 손정훈 목사

시간: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 김국중 팀장(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하태일 팀장(010-3798-3148)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 꿈꾸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꾸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분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꾸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툼운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서빙고 목요어머니 기도회

시간: 목요일 10시 30분 / 누리홀

문의 : 안민경 간사(02-3215-3523)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그 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CMN라파팀 의료봉사자 모집

안산엠센터: 내과외사, 간호사

(셋째 주일 오후 2시~5시)

서빙고: 간호사(셋째 주일 오후 4시~6시)

문의: 심형섭 팀장(010-3227-9915)

국악찬양팀 팀원모집

분야: 사물놀이 등 타악 경험자 및 배우실분

모임: 매주 목요일 저녁7시~9시반(서빙고)

문의: 신현희 팀장(010-6281-9121)

중동선교대회 선교사 멤버케어

날짜: 10월 23일~26일

비용: 90만원

모집: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간호사

각 1명

문의: 오천병 간사(02-3215-3786)

온누리세계관학교 안내

일시: 11월3일~11월17일(목) 오후 7:30~9:30

장소: 서빙고 신관 지하2층 시온홀

대상: 누구나

신청: 아이스홀 홈페이지

문의: 복인수 간사(02-3215-3533)

키즈유찬 교사모집

시간: 매주 토, 10~14시

대상: 초 3-6년

내용: 예배훈련, 안무, 보컬훈련

문의: 이지은 코치(010-3775-1797)

IBS 서빙고 토요반 62기 모집

일시: 10월 15일~11월 26일(7주과정)

매주 토요일 오전 10:15~12:3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

문의: KIBI 사무실(02-792-7075)

제 64회 성령수련회

강사: 박성은 목사

일시: 11월 19일(토) ~ 20일(주일)

장소: 예담원(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회비: 4만원

문의: 황보은선 권사(010-7120-5221,서빙고)

김현옥 집사(010-8955-3610, 양재)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9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서툼운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양재 목요어머니기도회

목요일 10시 30분 / JDS홀

문의: 이현주 간사(02-570-7553)

도곡 어머니기도회

목요일 10시 30분 / 충성홀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CGNTV 후원자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www.cgntv.net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아마존에서의 25년, 아내를 먼저 보낸 후에도 사역을 이어가고있는 김철기 선교사

“아마존에 있는 한 선교사를 위해 막대한 위성료를 지불하는 CGNTV를 보며 예수님의 마을을 느낍니다.”



방송일자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김영우의 스윗 사운즈

CGNTV 후원자와 함께한 패밀리콘서트

CGNTV 출연진들이 가을밤 아름다운 음악 이야기를 선물합니다.



#1
방송인 강석우



#2
고향교회 패밀리 4인방



#3
개그맨 표인봉



#4
개그우먼 허민

방송일자 10월 21일 금요일 밤 10시 40분